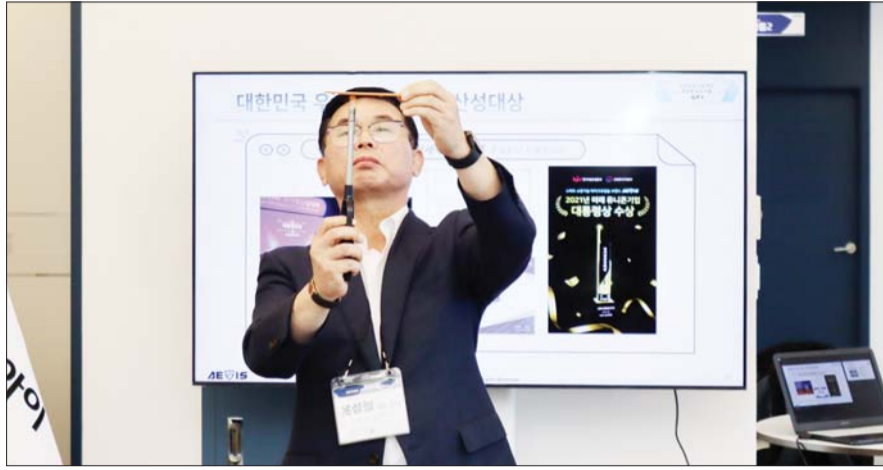


# 이노비즈기업 GFI “소화약제 캡슐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세계 최초 미세캡슐 소화기 개발  
분·배전함에 붙여놓으면 되는  
전통시장 ‘자동소화패드’ 선배  
공장·ESS 분야 등서도 효과적

지난해 경기 안양에 있는 한 마트에  
서 있었던 일이다. 전기콘센트에 불꽃  
이 튀고 불이 붙으면서 자칫 큰 화재가  
날 뻔했다. 그런데 콘센트를 타고 번지  
는 듯 했던 불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스스로 꺼졌다. 비결은 바로 마트 주인  
이 소화약제가 담긴 자동소화 패드를 1  
cm씩 잘라 3구 콘센트 내부에 6개를 붙  
여놓은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이  
자동소화 패드는 특정 온도 이상이 되  
면 머리카락 굵기인 100~200마이크로  
크기 캡슐에 있는 소화약제가 자동 분  
사하며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것으로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다.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캡슐 소화기를  
개발한 기술혁신기업 지에프아이(GF  
I)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돕기위해 사  
업 추가 확장에 나서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털이나 먼지가 전  
기콘센트에 묻혀 화재가 나는 것을 막  
기 위해 ‘자동소화’ 콘센트·멀티탭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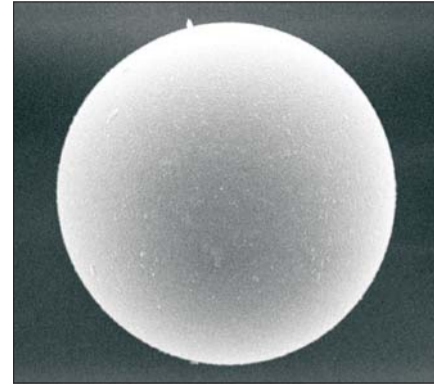
지에프아이 윤성필 마케팅부서 대표가 경기 김포에 있는 본사에서 자동소화패드를 갖고 소화 시  
험을 직접 하고 있다.

분야에도 직접 뛰어 들었다.

7일 경기 김포에 있는 지에프아이 본  
사에서 만난 윤성필 마케팅부서 대표는  
“모든 대형 화재의 시발점은 작은 불씨  
로, 전통시장의 큰 화재도 초기엔 ‘두꺼  
집’이라고 불리는 작은 분전함에 붙  
어 있다”면서 “전통시장을 찾아다니  
다 보니 분전함을 한번도 열어보지 않았  
는지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엉켜있  
는 곳이 태반이었다. 우리의 기술로 전  
통시장의 화재를 10%만 낮추자는 목  
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지에프아이는 지난해 경기 안양 남부  
시장에 200개, 서울 금천 현대시장에

100개의 자동소화패드를 기부했다.  
길이 20cm, 넓이 2cm 크기의 자동소  
화패드를 불이 나기 쉬운 분전함에 붙  
여놓으면 그만이다.  
자동소화패드는 전기도 필요없다.  
경기 안양의 한 마트 사례에서 보듯이  
패드에 붙어있는 수 많은 소화용 마이  
크로캡슐이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  
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불씨가  
번지는 것을 막는다.  
전통시장 화재 대부분은 사람이 없는  
새벽에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하기 때  
문에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신경쓰면  
자칫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효과적으



소화약제가 함유된 지에프아이의 마이크로캡  
슐 확대 화면.

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  
이다.  
마이크로캡슐에 담긴 소화약제는 미  
국 3M사의 ‘노벡(Novec) 1230’을 사용  
한다. ‘젓지 않는 물’로도 불리는 이 소  
화약제는 전기절연성이 우수하고 친환  
경적이다.  
액체 상태의 소화약제를 100~200마  
이크로 크기의 캡슐에 담아 다양한 제  
품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에  
프아이의 핵심 기술이다.  
“공장, 사무실, 자동차, 선박 등 전기  
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장치(ES  
S) 분야의 화재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와 필름형태로 만들

어 휴대폰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제품  
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지에프아이가 ‘이지스(AEGI  
S)’라는 브랜드로 출시하고 있는 제품  
은 자동소화패드, 자동소화 와이어, 자  
동소방 테이프, 자동소화 커버 등 다양  
하다. 패드의 경우 원하는 크기로 잘라  
붙이 나기 쉬운 곳에 붙여놓기만 하면  
된다. 전통시장이나 가정, 사무실 등의  
분·배전함에 테이프나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패드도 있다.  
지에프아이는 자동소화 패드를 내장  
한 콘센트와 멀티탭도 자체 제작을 시  
작했다. 이들 제품은 1·2·3·4·6구 등 콘  
센트의 갯수에 따라 다양하다.  
윤 대표는 “미세캡슐 소화기를 장착  
한 지에프아이의 제품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할 수 있고, 설치가 간편하  
다. 또 전원이 없어도 자동으로 감지하  
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없다. 세계  
최초로 관련 제품을 만들고 다양한 응  
용 제품 개발에 나서는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만큼 ‘화재  
예방 백신’이란 비전에 따라 안전산업  
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자 제조  
혁신 이노비즈기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中企·소상공인 속도성 통계 체제 갖춰야”

중기부, 통계 시의성 떨어져  
관계부처간 협력·공유 필요

코로나19 등 경제 영향이 큰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현재 국내 중소기업·소상  
공인 관련 공식 통계의 시의성이 떨어  
져 ‘속보성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존의 국가승인통계를 고도화  
해 적시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관련 지표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7일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속도성 통계  
구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는 적시성의 한계로 코로나19 기간  
주로 ‘단발성 설문조사’에 의존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를 통해선 피해 최  
소화를 위한 신속한 증거 기반 정책 추  
진이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이 팬데믹(세  
계적 대유행) 기간 중 구축한 중소기업  
관련 속도성 통계 사례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충격, 기후 변  
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  
공인 실시간 통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 승인 통계의 조  
사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적시성을 보완  
하는 한편 미국·영국 사례와 같이 다양  
한 실험적 통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매주 ‘소기업 동향조사’를 실  
시하고 국제청 정보를 활용한 ‘주간 기  
업설립통계’도 발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같은 해 3월부터 격주로  
‘기업환경 조사’를 발표해 매출액·공급  
망 상황·체감물가 등 기업 환경 전반을  
조사해 정책에 활용 중이다.  
부처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확대의 중  
요성도 제기됐다.  
중기부 장운섭 책임연구원은 “중소  
기업·소상공인 통계 작성 기관인 중소  
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데이터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통계의 생산·가공·분  
석에 플랫폼 기업 등 민간 사업자의 참  
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왼쪽 4번째)이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위촉식에  
서 해외민간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해외민간대사’ 10명 위촉

중소 글로벌 진출 민간자문 역할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외 진출을 희망  
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민간자문  
역할을 하는 해외민간대사를 위촉했  
다.  
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위촉식  
에는 기존에 활동 중인 해외민간대사  
28명에 대한 재위촉과 함께 해외민간대  
사 활동을 시작하는 10명에 대한 신규  
위촉을 진행했다.  
위촉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성공적인 해외진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해외민  
간대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해외민간대사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당 국가  
에서의 주요 활동내역과 관련 경력 등  
을 검토해 국가별로 중기중앙회장이 위  
촉한다.  
해외민간대사는 상시 해외진출 자  
문, 자문상담회 개최, 진출사례집 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해외진출을 희  
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제도,  
트렌드 등 현지 정보와 법인 설립, 사업  
노하우 등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  
팅을 제공한다.  
해외민간대사의 자문을 희망하는 중  
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  
업→국제통상지원→해외민간대사 제  
도’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과 문의는 중  
기중앙회 국제통상부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SK매직, ‘일회성 매트리스 클리닝’ 서비스

토탈 케어 솔루션... 타사제품도 가능  
SK매직이 누구나 손쉽게 매트리스를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일회성  
매트리스 클리닝 서비스’를 선보인다.

7일 SK매직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매트리스 클리닝 서비스는 침대 청소  
및 살균 등 전문적인 방문관리 서비스  
다. 매트리스를 별도 렌탈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로 타사 제품도 가능하다.  
전문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 ▲매트리스  
상태 점검 ▲침대 프레임 클리닝 ▲  
먼지 및 진드기 제거 등 매트리스 클리  
닝 ▲피톤치드 분사 및 향균 ▲자외선  
(UV)살균 ▲진드기 차단 패치 부착 등  
체계적인 토탈 케어 솔루션을 약 30분  
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복구작업 마  
무리 /사진 뉴시스  
▲ 경찰 “밀어” 외친 토끼 머리띠男 무  
혐의 결론

▲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이동재 증인  
채택... 최강욱은 불출석  
▲ 탈선·시위 여파...서울 지하철 곳곳  
지연운행 ‘출근 대란’



▲ 경찰, ‘매물사고’ 발생 봉화 아연 광  
산 합동감식 /사진 뉴시스  
▲ 여가부,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청소년  
상담 510건 지원